

#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Elderly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o  
Whether an Elderly Has a Spouse or Not

승의여대 가족복지과  
겸임교수 임창희\*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시간강사 한수진\*\*

Dep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Adjunct Professor* : Lim Chang 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 Han, Su Ji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n lifestyl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The target of this research is 202 people over 60 years of age who live in Seoul.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T-test, one-way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PSS and the Excel PC Program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research. First - in term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more active participation is observed with the elderly who have a spouse than with those who do not in every kind of leisure activity (except for the pastime activities). Second - all of the variables indicating the level of

\* 주저자 : 임창희 (gssmi@freechal.com)

\*\* 교신저자 : 한수진 (sjhan@sungshin.ac.kr)

satisfaction from activities of the seniors who have a spouse are by far higher than those of the elderly who have no spouse. Third - the leisure activities and the satisfaction from the activities prove affective variables on whether they have a spouse or not. Notably, the religious leisure activities are enjoyed more by those senior citizens who are married. Comparatively, the unmarried senior citizens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recreational and pastime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various practical means to promote leisure activities to the elderly and to raise the level of satisfaction received from those activities, as well as to help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and improving lifestyl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Nonetheless, this analysis is limited due to the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objects and samples studied. Therefore, studies to analyze leisure activities by regions in order to account for a more balanced set of systematical tools should follow.

**Key Words** : 유배우자 노인(the elderly who have spouse), 여가활동(leisure activitie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I. 서론

UN은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초과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 고령화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이상 장수(長壽) 노인은 2003년 7월 말 187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년 뒤인 2019년에는 14.1%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되고 다시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통계가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3).

이처럼 한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1980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인 “노년부양비”가 16.3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8.6명으로 낮아졌다. 또한 2030년에는 2.8명으로 더욱 줄어

한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어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잠재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통계청, 2003).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가족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돌보아야 할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에 투자한 나머지 자신들의 노후보장과 복지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세대이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생리적인 감퇴로 인하여 건강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자녀출가와 은퇴라는 사건은 수입의 감소,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상실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최정신, 1999: 재인용).

현재 한국 노인들은 50년대에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60-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며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이기에 여가의 활용과 이에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시간이 여가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기는 사회적·신체적·심리적·경제적 약화로 인하여 상호의존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이지만, 배우자의 사별은 비록 노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규범적인 사건일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으려는 노력 외에 그 주체인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인의 생활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양해진 여가활동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 유무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파악을 하는 탐색연구로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후속연구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활동이론

Havighurst & Albrecht(1953)는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집단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와 같은 욕구의 충족은 강제적인 퇴직이나 건강의 저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다.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활동참여가 제약을 받으면 자아평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하여 결국은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사회적 만족감이 낮아지게 된다.

활동이론(Havighurst & Albrecht, 1953)에 의하면 노인도 자신의 신체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회, 가정의 활동에 참여하면 노인 자신의 정서, 삶의 만족도, 체력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동력의 일부를 담당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정화, 규범 확립, 노동생산성 향상에 이점을 가져온다고 한다.

Lemon, Bengtson & Peter(1972)는 개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을 재확인하는 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활동이며, 활동이 친밀하고 빈번할수록 역할지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해 진다고 하였다. 역할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생활만족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적 관점에

서 활동은 구체적인 지위에 따른 역할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emon 등이 의미하는 활동이란 우연한 만남이 아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대인관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활동이론에 의하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한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므로(Knapp 1976), 노령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령으로 인해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사회와 노인 간의 상호작용이란 입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회구조 안에서의 노인들의 지위와 이에 결부된 사회적 역할 및 활동, 노화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 즉,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위에도 변화가 초래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은 적절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고립감, 무력감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쇠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잔여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2. 노인의 여가활동

Corbin & Tait(1973)는 여가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며, 또한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가활동을 통해 소속감이나 성취감, 상호작용, 성장, 인정 등의 욕구가 충족되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최덕경, 1998).

Bull(1975)은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 노인과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차이는 없으며 (김태현·박재간, 1988; 재인용), Ward(1979)는 노인들이 동년배집단과 자주 어울린다고 해서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카드놀이를 하는 노인보다는 활동적인 일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Ward & Sherman(1984)은 노인의 사회모임 참여나 활동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특히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며 고독감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이선미, 1991; 재인용).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 다양화는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Ward & Sherman(1984)은 노인의 교체나 사회활동이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김종숙(1986)은 노인들은 그들의 특성과 목적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로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한다. 특히 여가활동은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데, 특정 개인에게 일상 활동이나 업무에서 얻을 수 없는 내적 만족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심리적·상징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정우·이윤미(1997)는 노인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의 습득이 요구되며, 사회화를 통하여 지식과 기술이 익숙해졌을 때 노년기에 보다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효과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는 노년기 생활을 얼마나 만족스럽고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노인 자신의 사기와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화(Aging)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화는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며 노년기에 수반하여 변화하게 되는 상황은 지위와 역할의 변화, 자녀의 독립,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생활환경의 변화 등이 있다. 그러므로 노화되어 가는 인간으로서 끝없는 고통과 공허의 경험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다(오현숙, 2003).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여러 가지의 퇴화와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만큼 성숙한 대응태도와 적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노인이 갖는 생활만족도는 노인에게 있어서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란 장기간에 걸친 가치관과 자아개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한 개인의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해가며 자신의 생애

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오현숙, 2003).

학문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장현·이철우, 1996). 성공적인 노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생활만족도가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Rowe와 Kahn(1997)은 장애를 피하고, 육체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동의 추구를 통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증가 등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년기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목표로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일반화 된 것은 Havighurst·Neugarten·Tobin 등의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생활만족 척도를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이다(서말희·유가효, 1999; 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부부관계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관계를 맺게 된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철진, 2000; 김춘택, 1997; 장현·이철우, 1996; 정인숙, 2000).

결혼 상태의 유배우자 노인이 배우자 사별 노인이나 미혼노인보다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노인보다는 고령노인에게 결혼상태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annell & Dupuis, 1996).

배우자의 상실은 경제적·정신적 지주를 잃음과 동시에 특히 여자노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상실은 소외감, 고독감으로 더욱 고통을 줄뿐

만 아니라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즉, 배우자와의 사별은 경제적인 곤란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의 감소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쉽게 느끼게 하며 이러한 경우 친밀한 친구 관계가 노인의 사기에 도움이 된다(Gordan, 1978; 이우복, 1993; 재인용).

Rilry & Fomer(1968)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사망률은 더 낮으며 정신질환도 더 적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 신앙심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이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性)이나 나이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김태현, 1986). 홍순혜(1984)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과 자주 만나 활동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숙(1987)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사회적 지위, 자녀유대관계, 사회활동 등을 들고 있으며, 이우복(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교육 참여, 건강상태,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고승덕(199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들로서,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교육정도, 가족형태, 육체적 건강, 생활활력, 자부심, 자아존중감, 실패감, 열등감, 여가활동 여부, 직업유무 등을 보고하고 있다.

김수옥·박영주(2000)의 최근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직업, 가족형태, 교육정도, 종교가 삶의 질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

이 없는 것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홀로 사는 것 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노인이, 그리고 종교를 가진 노인이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2000)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종교활동 참여도, 건강상태, 재산상속 완료 여부 등이 보고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인의 일반적 특성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가활동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차이는 어떠한가?
2. 유배우자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차이는 어떠한가?
3. 무배우자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생활만족도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차이는 어떠한가?
2. 유배우자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차이는 어떠한가?
3. 무배우자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배우자유무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측정도구의 구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관계,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 월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에서는 먼저 이선미(1992), 송정선(1996) 등의 연구를 토대로 여가활동종류를 34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가활동의 성격이 비슷한 문항을 다시 6가지 여가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여가활동은 ① 자기개발 여가활동(1-8) ② 가족중심 여가활동(9-14) ③ 종교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 (15-16) ④ 사교오락 여가활동(17-26) ⑤ 소일 여가활동(27-29) ⑥ 스포츠 및 건강 여가활동(30-34)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마다 '전혀 안함' 1점, '아주 가끔하는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하는 편이다' 4점, '매일 한다'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할 때는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분류된 6가지 여가활동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산한 값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만족도 척도는 Havighurst 외(1953)들에 의하여 개발된 LSI -A(Life Satisfaction Index -A)를 보완·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과거생활만족도, 현재 생활만족도, 미래 생활만족도로 나누었으며, 과거의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7290이며, 4문항으로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생활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9085이며, 7문항으로 점수범위는 7점에서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생활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래의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80이며, 4문항으로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생활만족

도 척도의 신뢰도는 .8943이며, 모두 18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8점에서 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60세를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만 60세를 회갑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노인이라고 인식이 되어왔음을 고려하여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9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 후 일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 노인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면접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서초구에 위치한 노인대학과 관악구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소일하는 파고다공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된 것은 202부였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t검증, 일원분산분석, 카이검증을 실시했으며,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배우자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Excel Program을 이용하

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 기초자료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인들의 성별은 남자노인이 47.0%, 여자노인이 53.0%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71-75세의 노인이 26.7%, 66-70세의 노인이 25.2%, 61-65세의 노인이 18.8%, 76-80세의 노인이 18.8%, 80세 이상의 노인이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노인이 35.1%, 미혼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28.8%,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사는 노인이 11.9%, 결혼한 딸과 사는 노인이 7.9%, 노인 혼자 독신으로 사는 노인이 13.4%, 기타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39.6%, 대학교 이상을 나온 노인이 23.8%, 초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18.3%, 중학교를 나온 노인이 14.4%, 무학인 노인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74.3%, 종교가 없는 노인은 25.7%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50만원 이하 소득의 노인이 32.2%로 가

2)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유형 및 여가정도의 실태를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매일 가장 많이 활동하는 여가에는 소일 여가활동으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97.0)%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의 대화(38.6%)와 집 근처 공원에서 무료한 시간보내기(22.3%)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 안 하는 여가활동에는 자기개발 여가활동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가 전국 저소득층 노인 1,041명을 대상으로 밝힌 결과에서는 라디오 청취와 TV시청이 7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투, 장기 등의 놀이가 26.5%, 공원, 복덕방, 경로당 등에서 소일활동이 17.4%, 신문, 잡지, 서적 등 독서활동이 9.5%, 등산, 산책 등 운동이 6.9%, 예술 관련활동은 1.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90)의 조사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 노인들이 운동경기 참여 및 관람문화 및 예술적 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 유형의 참여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활동에의 참여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02)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95	47.0	종교 유무	유	150	74.3
	여자	107	53.0		무	52	25.7
연령	61- 65세	38	18.8	교육 수준	무학	8	4.0
	66- 70세	51	25.2		초등학교	37	18.3
	71- 75세	54	26.7		중학교	29	14.4
	76- 80세	38	18.8		고등학교	80	39.6
	80세 이상	21	10.4		대학교 이상	48	23.8
동거 유형	결혼한 아들	24	11.9	가계 소득	50만원 이하	65	32.2
	결혼한 딸	16	7.9		51 - 100만원	26	12.9
	미혼자녀와 배우자	48	28.8		101 - 150만원	22	10.9
	배우자	71	35.1		151 - 200만원	12	5.9
	독신	27	13.4		201 - 250만원	32	15.8
	기타	16	7.9		251 - 300만원	15	7.4
					300만원 이상	30	14.9



〈표 2〉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여가활동실태 (n = 202)

구 분		전혀 안함		아주가끔 (일년1-2)		보통 (한달1-2)		자주 (일주일1-2)		매일	
		N	%	N	%	N	%	N	%	N	%
자기 개발	문예활동 (시, 수필 등)	175	86.6	13	6.4	9	4.5	5	2.5	0	0.0
	수집활동 (분재, 수석 등)	168	83.2	16	7.9	15	7.4	3	1.5	0	0.0
	서예 / 목화 / 그림 그리기	157	77.7	9	4.5	28	13.9	8	4.0	0	0.0
	노래부르기 / 악기연주	144	71.3	11	5.4	32	15.8	12	5.9	3	1.5
	교양강좌 (노인대학 등)	117	57.9	7	3.5	19	9.4	53	26.2	6	3.0
	외국어 강좌( 영어, 일어 등)	142	70.3	9	4.5	20	9.9	25	12.4	6	3.0
	컴퓨터 강좌	118	58.4	14	6.9	19	9.4	38	18.8	13	6.4
	독서 (신문, 성경, 책 등)	80	39.6	6	3.0	19	9.4	53	26.2	44	21.8
가족 중심	친척 및 자녀집 방문	63	31.2	50	24.8	60	29.7	23	11.4	3	3.0
	가족과의 대화	35	17.3	11	5.4	30	14.9	47	23.3	78	38.6
	가족과 외식	51	25.2	55	27.2	71	35.1	21	10.4	4	2.0
	손자녀 돌보기 및 놀아주기	65	32.2	22	10.9	49	24.3	37	18.3	29	14.4
	정원손질 및 정원(화초) 가꾸기	110	54.5	14	6.9	17	8.4	41	20.3	20	9.9
	특별 음식만들기 및 간식만들기	136	67.3	5	2.5	23	11.4	29	14.4	9	4.5
종교 및 사회	종교활동(예배, 개인적인 기도)	88	43.6	3	1.5	20	9.9	63	31.2	28	13.9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 참여	141	69.8	22	10.9	18	8.9	16	7.9	4	2.0
사교 오락	영화 및 영극관람	108	53.5	51	25.2	37	18.3	6	3.0	0	0.0
	음악회 관람	134	66.3	36	17.8	28	13.9	4	2.0	0	0.0
	각종 작품 전시회관람	138	68.3	42	20.8	18	8.9	4	2.0	0	0.0
	각종 스포츠관람	157	77.7	20	9.9	15	7.4	9	4.5	1	0.5
	놀이 (화투, 바둑, 장기 등)	106	52.5	18	8.9	38	18.8	24	11.9	16	7.9
	사우나 및 온천	56	27.7	11	5.4	51	25.2	81	40.1	3	1.5
	낚시하기	170	84.2	21	10.4	11	5.4	0	0.0	0	0.0
	동창회·계모임·친목회 등 참석	55	27.2	24	11.9	115	56.9	8	4.0	0	0.0
	노인정 가기	138	68.3	2	1.0	10	5.0	20	9.9	32	15.8
	관광 및 해외여행	67	33.2	126	62.4	6	3.0	1	0.5	2	1.0
소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2	1.0	0	0.0	1	0.5	3	1.5	196	97.0
	낮잠 및 휴식	117	57.9	2	1.0	10	5.0	35	17.3	38	18.8
	집, 근처공원에서 시간보내기	123	60.9	4	2.0	13	6.4	17	8.4	45	22.3
건강	골프	159	78.7	17	8.4	14	6.9	7	3.5	5	2.5
	등산	87	43.1	20	9.9	52	25.7	31	15.3	12	5.9
	산보 및 조깅	73	36.1	12	5.9	46	22.8	40	19.8	31	15.3
	요가 및 단전호흡	124	61.4	5	2.5	28	13.9	41	20.3	4	2.0
	체조	100	49.5	4	2.0	28	13.9	50	24.8	19	9.4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일반적 특성 차이검증

<표 3>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각 변수별 유무를 단순화시켜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은 여자노인이 39.7%, 남자노인이 60.3%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많은 반면,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는 여자노인이 77.5%, 남자노인이 22.5%로 여자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이러한 차이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자노인들의 고연령 집단일수록 배우자 없이 살아가며, 특히 유배우자인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만이 사는 경우

와 무배우자인 노인은 독거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사회가 보여주는 특징적 현상으로 핵가족화 및 세대 간 동거의식 그리고 가족주의로부터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과 결부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김태현, 1999).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은 60대 노인이 55.7%로 가장 많았고, 80대 노인은 5.3%인 반면,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에는 70대가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80대 노인은 19.7%로 유배우자의 80대 노인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배우자 노인은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노인이 77.9%로 무배우자 노인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36.6%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소득을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201만

(표 3)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검증

구 분		유배우자 (n= 131)		무배우자 (n= 71)		X <sup>2</sup>
		N	%	N	%	
성별	여자노인	52	39.7	55	77.5	26.368***
	남자노인	79	60.3	16	22.5	
연령	60- 70	73	55.7	16	22.5	26.655***
	71- 80	51	38.9	41	57.7	
	80세 이상	7	5.3	14	19.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9	22.1	45	63.4	37.015***
	고등학교 이상	102	77.9	26	36.6	
동거유형	결혼한(아들, 딸)	9	6.9	31	43.6	-
	미혼자녀와 배우자	48	36.6	.	.	
	배우자	71	55.0	.	.	
	독신 및 기타	3	1.5	40	56.3	
종교유무	있다	98	74.8	52	73.2	.059
	없다	33	25.2	19	26.8	
가계소득	50만원 이하	19	14.5	46	64.8	63.270***
	51 - 200만원	42	32.1	18	25.4	
	201만원 이상	70	53.5	7	9.8	

\*\*\*p< 0.001

원 이상 소득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하의 소득 노인이 1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무배우자의 노인은 50만원 이하의 소득 노인이 64.8%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 이상의 소득 노인이 9.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검증

<표 4>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검증

구 분	유배우자		무배우자		t값	
	M	S.D	M	S.D		
여 가 활 동	자기개발	1.93	.65	1.54	.59	4.224***
	가족중심	2.80	.84	2.09	1.37	3.935***
	종교 및 사회	2.29	1.10	1.95	1.00	2.155**
	사교오락	1.91	.39	1.69	.43	3.801***
	소일	3.00	.82	3.57	.96	-4.414***
	건강	2.42	.69	1.71	.79	6.636***

\*\*p< 0.05, \*\*\*p< 0.01

<표 4>은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여가활동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여가활동 참여도는 무배우자 노인들은 소일 여가활동에서만 유배우자 노인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기타 모든 여가활동에 유배우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상실로 인한 의욕상실로 무료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 유배우자 노인의 여가활동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건강의 여가에는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으나, 소일 여가활동에는 남자노인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족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임미숙, 1985; 최성재, 1985; 송정선, 1996)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노년기에 있어 남자노인은 사회·직업적 은퇴 후 역할상실의 변화로 생활환경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심리적 행복감이 절감되는 반면에 여자노인은 가정 속에서 또는 이웃과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를 살펴보면,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가족중심의 여가활동과 건강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일활동에는 80대의 노인으로 고령에 갈수록 참여가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더 많아지지만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고령이 됨에 따라 기력의 약화로 인하여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유배우자 노인은 동거유형에 따라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 모두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은 배우자 부부만 사는 노인보다는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 소일 여가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를 살펴보면 6개 모든 영역의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높은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탐색하는 능력을 높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변인임을 시사해 준다.

〈표 5〉 유배우자 노인의 여가활동 차이검증

구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여자	2.15	.63		3.06	.83		2.54	1.01		1.87	.38		2.73	.66		2.58	.75	
남자	1.78	.61		2.62	.80		2.13	1.13		1.95	.39		3.17	.88		2.32	.63	
t값	3.325 ***			2.996 ***			2.131 ***			-1.158			-3.235 ***			2.054 ***		
연령																		
60대	1.94	.59		2.92	.74	B	2.24	1.07		1.91	.39		2.83	.71		2.47	.70	B
70대	1.94	.72		2.68	.86	AB	2.30	1.06		1.94	.38		3.20	.92		2.43	.68	B
80대	1.71	.67		2.28	1.32	A	2.78	1.67		1.74	.42		3.33	.92		1.82	.37	A
F값	.418			2.637 *			.758			.840			3.773 ***			2.895 *		
동거유형																		
배우자	1.98	.67		2.80	.86		2.47	1.01		1.95	.40		3.20	.90		2.35	.59	
자녀	1.87	.62		2.79	.82		2.09	1.18		1.87	.37		2.76	.66		2.51	.78	
t값	.990			.072			1.983**			1.164			3.275***			-1.252		
교육수준																		
고졸미만	1.65	.63		2.41	1.03		2.00	1.26		1.81	.40		3.37	.90		2.17	.68	
고졸이상	2.01	.63		2.91	.74		2.38	1.04		1.95	.38		2.89	.77		2.50	.68	
t값	-2.634***			-2.406**			-1.654*			-1.667*			2.854***			-2.291**		
종교유무																		
유	2.02	.64		2.90	.78		2.59	.99		1.94	.38		2.94	.83		2.49	.66	
무	1.66	.58		2.50	.94		1.42	.95		1.84	.41		3.18	.80		2.23	.76	
t값	2.801***			2.411**			5.888***			1.267			-1.445			1.919*		
가계소득																		
50만원미만	1.57	.58	A	2.22	1.17	A	2.36	1.47		1.73	.41	A	3.36	.95	A	1.98	.43	A
51-200만원	1.86	.68	AB	2.74	.81	B	2.38	1.06		1.84	.40	AB	3.17	.89	AB	2.32	.74	B
201만원이상	2.07	.61	B	2.99	.66	B	2.22	1.02		2.01	.35	B	2.80	.68	B	2.61	.65	B
F값	4.966***			6.830***			.292			5.080***			5.175***			7.354***		

\*p< 0.10, \*\*p< 0.05, \*\*\*p< 0.01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중심 여가활동, 종교 및 사회, 건강 여가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종교활동은 사회·심리적으로 소외감, 고독감을 겪게 되는 노인에게 역할상실에서 오는 긴 여가시간을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회제공과 건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배우자 노인의 소득에 따라 자기개발, 가족중심,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은 경제적으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 2) 무배우자 노인의 여가활동 차이

무배우자 노인은 성별에 따라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

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교오락, 건강 여가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교오락과 건강은 활동적인 여가이기 때문에 60대에 가까운 젊은 노인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은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자녀동거 노인은 독거노인보다 다수의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가족중심 여가활동이 독거노인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자 노인이 독거하는 경우에는 소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중심 여가활동의 고등학교 이상 의 교육수준을 가진

〈표 6〉 무배우자 노인의 여가활동 차이검증

구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여자	1.63	.60		2.37	1.44		2.20	1.00		1.73	.45		3.41	.91		1.84	.81	
남자	1.21	.43		1.13	.26		1.12	.34		1.53	.32		4.10	.94		1.27	.50	
t값	3.043***			5.998***			6.722***			2.042**			-2.614***			3.414***		
연령																		
60대	1.78	.70		2.47	1.15		2.06	1.12		1.95	.44	B	3.68	1.09		2.13	.74	B
70대	1.49	.55		1.94	.95		1.91	.92		1.62	.41	A	3.56	.91		1.68	.80	AB
80대	1.40	.55		2.08	2.37		1.96	1.13		1.60	.39	A	3.47	1.00		1.31	.57	A
F값	1.849			.853			.122			3.933***			.183			4.523**		
동거유형																		
독신 및 기타	1.48	.50		1.51	.72		1.68	.86		1.58	.41		4.01	1.03		1.70	.80	
자녀	1.57	.65		2.44	1.56		2.12	1.05		1.75	.44		3.30	.81		1.72	.78	
t값	-.692			-3.386***			-1.824*			-1.626			3.037***			-.098		
교육수준																		
고졸미만	1.45	.58		1.85	.99		1.86	.99		1.68	.40		3.58	.98		1.62	.75	
고졸이상	1.68	.60		2.50	1.82		2.11	1.01		1.70	.49		3.55	.93		1.86	.83	
t값	-1.595			-1.921*			-1.007			-.169			-142			-1.251		
종교유무																		
유	1.61	.60		2.37	1.48		2.25	1.00		1.74	.43		3.39	.91		1.85	.82	
무	1.34	.55		1.33	.56		1.15	.37		1.55	.41		4.05	.95		1.33	.53	
t값	1.657			4.270***			6.682***			1.639			-2.649***			3.071***		
가계소득																		
50만원미만	1.30	.38		1.73	.89		1.73	.90		1.57	.33		3.68	.88		1.45	.67	
51-200만원	1.84	.66		2.72	2.08		2.19	1.05		1.83	.51		3.40	1.13		2.11	.74	
201만원이상	2.30	.63		2.83	1.01		2.78	1.03		2.10	.54		3.28	1.00		2.40	.87	
F값	16.665***			4.921***			4.364**			6.775***			.867			9.036***		

\*p< 0.10, \*\*p< 0.05, \*\*\*p< 0.01

노인이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결과는 종교라는 변인이 같기 때문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무배우자 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노인보다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고 종교활동 외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노인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에 따라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위한 금전적인 지출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보다 폭넓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표 7>은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들도 모두 유배우자 노인들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도는 배우자유무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 1) 유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유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현재 생활만족도에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현재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있어 남

자노인은 사회·직업적 은퇴 후 역할상실의 변화로 생활환경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심리적 행복감이 절감되는 반면에 여자노인은 가정 내에서 또는 이웃과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미래 생활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60대 유배우자 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노인, 80대 노인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약화, 사회적 참여의 쇠퇴 등으로 심리적 복지감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7〉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구분	유배우자		무배우자		t값	
	M	S.D	M	S.D		
생활만족도	과거생활만족도	2.23	.54	1.51	.57	8.744***
	현재생활만족도	2.48	.47	1.79	.71	7.307***
	미래생활만족도	2.12	.57	1.50	.61	7.234***
	전체생활만족도	2.33	.47	1.65	.58	8.375***

\*\*\*p< 0.01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유배우자 노인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보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대다수는 공식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교육기회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종교유무에 따라 현재

생활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종교와 노인의 생활만족에 있어서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한다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미숙·박민정, 2000; 김태현·김수정, 1996)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과 경제상태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경제상태가 양호하고, 이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장현·이철우, 1986)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2)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과거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표 8〉 유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구분	전체생활만족			과거생활만족			현재생활만족			미래생활만족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여자	2.35	.44		2.53	.41		2.27	.49		2.24	.50	
남자	2.32	.49		2.45	.51		2.03	.60		2.22	.57	
t값	.409			.936			2.541***			.248		
연령												
60대	2.36	.45	B	2.50	.46	B	2.30	.47	B	2.26	.50	B
70대	2.35	.47	B	2.51	.47	B	1.94	.61	AB	2.24	.59	B
80대	1.95	.56	A	2.14	.61	A	1.64	.64	A	1.85	.64	A
F값	2.434*			1.759			1.996			9.864***		
동거유형												
배우자	2.30	.48		2.46	.48		2.05	.56		2.20	.57	
자녀	2.37	.45		2.52	.46		2.21	.58		2.25	.51	
t값	-.924			-.753			-1.514			-.525		
교육수준												
고졸미만	2.05	.50		2.00	.57		2.26	.49		1.88	.63	
고졸이상	2.41	.43		2.29	.52		2.55	.45		2.19	.54	
t값	-3.780***			-2.628***			-2.864***			-2.610***		
종교유무												
유	2.38	.44		2.25	.54		2.54	.45		2.17	.56	
무	2.17	.53		2.16	.57		2.31	.51		2.00	.61	
t값	2.226**			.777			2.532**			1.410		
가계소득												
50만원미만	1.89	.52	A	1.77	.55	A	2.11	.57	A	1.67	.64	A
51-200만원	2.17	.44	B	2.05	.49	B	2.34	.48	B	2.13	.47	B
201만원이상	2.54	.33	C	2.46	.45	C	2.67	.34	C	2.25	.56	B
F값	23.930***			18.996***			16.747***			8.463***		

\*p< 0.10, \*\*p< 0.05, \*\*\*p< 0.01

나타났고, 특히 무배우자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절망감과 사회적 은퇴 후 역할상실로 인한 주관적 복지감이 하락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은 연령에 따라 미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미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떨어진다고 한 연구결과와(김태

현, 1999) 일치된 결과이다.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종교유무에 따라 과거, 현재, 전체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교

(표 9)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전체생활만족			과거생활만족			현재생활만족			미래생활만족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여자	1.70	.58		1.57	.60		1.86	.71		1.50	.61	
남자	1.48	.58		1.29	.43		1.57	.68		1.46	.63	
t값	1.315			2.044**			1.456			.230		
연령												
60대	1.83	.56		1.53	.63		2.05	.74		1.76	.64	
70대	1.60	.61		1.49	.58		1.72	.72		1.44	.59	
80대	1.59	.53		1.53	.52		1.73	.60		1.35	.56	
F값	.974			.039			1.324			2.106 **		
동거유형												
독신 및 기타	1.40	.43		1.21	.35		1.54	.59		1.27	.51	
자녀	1.81	.61		1.69	.61		1.95	.74		1.63	.63	
t값	-3.257***			-4.176***			-2.550***			-2.476***		
교육수준												
고졸미만	1.49	.52		1.36	.53		1.64	.67		1.28	.45	
고졸이상	1.93	.59		1.75	.57		2.06	.71		1.86	.68	
t값	-3.173***			-2.899***			-2.478**			-3.824***		
종교유무												
유	1.73	.58		1.58	.61		1.89	.70		1.54	.61	
무	1.45	.55		1.30	.42		1.54	.69		1.38	.59	
t값	1.762*			2.207**			1.808*			.982		
가계소득												
50만원미만	1.47	.52	A	1.38	.50	A	1.59	.67	A	1.29	.46	A
51-200만원	1.89	.56	B	1.65	.69	AB	2.09	.66	AB	1.72	.68	B
201만원이상	2.23	.51	B	2.00	.38	B	2.38	.59	B	2.25	.59	C
F값	8.559***			4.652**			6.780***			11.547***		

\*p< 0.10, \*\*p< 0.05, \*\*\*p< 0.01



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종교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복지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연구결과와(김미숙·박미정, 2000)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과거, 현재, 미래 생활만족도가 모두 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한시적인 생활사건이라기 보다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분석

배우자 유무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에 의행 얼마나 설명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변수, 생활만족도 변수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그리고 가계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가활동변수는 자기개발 활동, 가족중심 활동, 종교사회 활동, 사교오락 활동, 소일 활동 그리고 건강관련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 변수는 과거 생활만족도, 현재 생활만족도, 미래 생활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성별과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는 가변수처리 하였으며, 연령은 60대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70대, 80대를 가계소득은 50만원을 준거기준으로 51-200만원, 201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유무 영향력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142.045,  $p < .001$ )하며 총 사례의 88.6%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119.893). 배우자유무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이며 여가활동변수로는 종교사회 활동, 사교오락 활동, 소일 활동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관련 변수로는 과거생활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여자일 확률이 70%이며, 60대 노인에 비해 70대와 80대 노인이 배우자가 없을 확률이 24%, 4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종교사회 활동에 더 참여할 확률이 4% 높으며, 배

<표 10>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 영향력 분석

독립변수	배우자 유무			
	B	S.E	Exp(B)	$\partial P / \partial X$
<b>성별</b> (여자 =1)	-4.607***	.952	.010	-0.70414
<b>연령</b> (60대)				
70대	-2.206***	.608	.110	-0.3371
80대	-3.181***	.980	.042	-0.4861
<b>교육수준</b> (고졸미만)	-.313	.585	.731	-0.0478
<b>종교유무</b> (유=1)	.080	.662	1.083	0.0122
<b>가계소득</b> (50만원 이하)				
51만원-200만원	-.024	.556	.976	-0.0036
201만원 이상	.497	.833	1.644	0.0759
<b>여가활동</b>				
자기개발여가활동	.028	.068	1.029	0.0042
가족중심여가활동	.053	.045	1.054	0.0081
종교사회여가활동	.263*	.151	1.300	0.0401
사교오락여가활동	-.170**	.080	.844	-0.0259
소일여가활동	-.350***	.110	.705	-0.0534
건강여가활동	.105	.077	1.111	0.0160
<b>생활만족도</b>				
과거생활만족도	.321**	.153	1.379	0.0490
현재생활만족도	.095	.087	1.099	0.0145
미래생활만족도	-.024	.140	.977	-0.0036
상수	4.322**	2.116	75.338	
-2 log Likelihood	119.893			
Model Chi-Square	142.045			
% correctly	88.6			

\* $p < 0.10$ , \*\* $p < 0.05$ , \*\*\* $p < 0.01$

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사교오락 활동과 소일 활동에 1단위 더 참여할수록 확률이 2.6%,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4.9%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도는 무배우자 노인들은 소일 여가활동에서만 유배우자 노인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기타 모든 여가활동에 유배우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별 여가활동 차이를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여가활동에 여자노인이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건강여가활동에 남자노인보다 적극 참여하고 있고, 사교오락과 소일여가활동에는 남자노인의 참여가 높았다. 무배우자 노인은 남자노인이 소일 여가활동에만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남자노인은 배우자상실과 가정과 사회의 역할변화가 의욕상실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 여가활동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80대 고령의 노인일수록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고, 무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60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소일 여가활동은 독거일 때 참여가 높고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은 자녀동거 노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상실로 인한 의욕상실을 자녀와 동거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더 적극참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정적인 관계로 보다 폭넓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이 감소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사회·경제활동의 범위는 여가활용의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심리적 위안을 주고,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종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특히 무배우자의 경우에는 종교가 가져다 주는 심리적 위로감과 안정감이 더 클 것이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개발, 건강, 종교 및 사회 등의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에게 있어 소득은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촉매역할로서 중요한 변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들도 모두 유배우자 노인들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는 유무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보다 자녀와의 동거노인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독거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생활에 필요한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가중시켜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상실로 인하여 활동의 기회가 좁아진 노인에게 종교는 사회생활의 기회제공과 폭넓은 대인관계가 여가활동의 기회를 갖게 해줄 것이며, 노년기 삶의 대한 의미와 자아 통합성을 갖도록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들의 심리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인간의 생리화학적 특성에서 볼 때 배우자 상실의 기회가 높은 시기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를 알아봄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가활동 활성화와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제언을 하면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은 사회적·직업적 은퇴 후 역할상실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리적 행복감이 낮으며 이는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낮은 생활만족도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노인들은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TV를 시청하거나 낮잠 및 휴식과 같은 소일여

가활동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나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성인지적 관점(Sex-recognized Perspective)을 충분히 반영하여, 남자노인들의 여가활동 육성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력이 높은 노인들은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들보다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여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이므로 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와 연금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들이 일차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빈곤 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심리사회 및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퇴 직후인 60대 노인들에게는 은퇴 후 적응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길어진 은퇴기간을 위해 자산관리, 건강관리, 유산 및 상속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무상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TV프로그램개선과 함께 여가의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홍보와 근린 주거시설과 관련된 노인 복지 시설 등의 여가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연구대상자와 표집상의 한계로 인해 그 제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지역을 고려하고 현 세대 노인이 처한 사회적·문화적 그들이 살아온 특수성을 고려하여 길어진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115-153.
- 3) 김미숙, 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 4) 김종숙(1986).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5)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23집.
- 6) 김태현, 박재간(1988).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학회지 제 6호.
- 7) 김태현,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6(1), 18-38.
- 8) 김태현(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 9) 김철진(2000). 전남 영광지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10) 김춘택(1997).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서말희, 유가효(1999). 대구근교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2), 29-41.
- 12) 송정선(1996).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15) 오현숙(2003). 노인의 죽음개념 비교. 한국노년학회 12, 137-154.
- 16) 장현, 이철우(1996).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이연구. 한국노년학회 16(2), 137-150.
- 17) 정인숙(2001). 노인의 원인귀속유형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만족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49-70.
- 19) 최덕경(1998). 농촌 주부의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 한국가족.
- 20) 최정신(1999). 농촌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21-139.
- 21) 한혜원(2000).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2) 통계청(2002). 장래인구 추계.
- 23)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
- 24) 홍순혜(1984). 활동 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5) Bull, C. N(1975).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satisfaction :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30(1), 73-76.
- 26) Corbin, J & Tait, W. J(1973). Education for Leisure(Englewood Cliffs : Prentice-

- Hall Inc.
- 27) Gordan, M(1978). The American Family : Past, Present and Future N Y Random House, inc.p.350kinsry, A. Pomery. W. and Martin. C.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phia : saunders.
- 28) Havighurst, R. J& Albrecht, R(1953). Older People. N .Y : Longmans, Green & Co.
- 29) Knapp, M. R. J.(1976). Predicting the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595-604.
- 30) Lemon, B, Bengtson, V, L & Peter, J. A(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 27, 511-523.
- 31) Mannell, R. C & Dupuis, S.(1996). Life Satisfaction in J. E.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New York : Academic Press, 59-64.
- 32) Rily. W. W & Forner. A.(1986). Aging and Society : Inventory of Reserch Finding. N.Y : Russel Sage Foundation.
- 33) Rowe, W. and Kahn,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37, 433-440.
- 34) Ward, R. A(1979). The Meaning Of volume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to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7(3), 438-445.
- 35) Ward, R. A & Sheman, S. R(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Vol 39, 93-101.

- 접수일 : 2008년 4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8월 21일